

국회의원선거 D-162... 여·야, 총선체제 일제히 전환

제주 정치권 후보군 중심 행보 가속화

민주·한국 총선거획단 출범... 공천 기준 마련 착수
수성·탈환 주자 확보위한 옥석가리기 '동분서주'

여야가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해 본격적인 진용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제주지역 정치권도 후보군을 중심으로 행보가 더욱 빨라지게 됐다.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방침을 밝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거획단을 발족하고, 인재 영입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총선거획단을 출범시키는 등 여야가 일제히 총선 체제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4월 도내 여야 정당 등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60여일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여당은 수성을 위한 예산전을, 야당은 대항마를 선택하기 위한 전초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로인해 예비후보들은 일굴알리기 등 인지도 제고를 위해 발품팔이에 한창이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총선거획단 구성을 완료했다. 기획단은 전체적인 총선 전략 및 주요 정책 공약 수립, 공천 세부 규칙 결정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12월 9일) 이후에 선거대책위원회도 구성기로 했다.

이번주부터 현역의원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불출마자를 제외하고 현역의원 하위 20% 선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제주지역은 3개 선거구 모두 현역들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선거구는 공천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당도 이날 오후 총선거획단 임명식 및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기획단은

매주 월·수요일 정례회를 열고 공천 룰 확정 등의 작업을 가속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1야당 후보로 나서려는 제주지역 후보군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는 양상이다. 그 중에서도 제주시 갑 선거구가 가장 치열한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제주시 을과 서귀포선거구도 과거 보수세력의 세굴함을 통한 후보를 내세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다른 보수세력의 한 축인 바른미

레당은 내홍 속에서도 향후 탈당과 신당 창당 등에 따른 재편으로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의 진로도 판가름 날 것으로 예측돼 남은 기간 후보군 진입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역시 인재영입을 통한 세화산에 가세하면서 유력정당으로 발돋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도 호흡을 같이하며 나름 광폭행보에 나서고 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비 내리는 가을날 보름달 풍경 4일 비가 내리는 서귀포시 표선면 보름밭에서 관광객들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맨드라미 꽃밭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고있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J-Connect Day 2019'

7~9일 제주벤처마루서 진행
지역혁신가 경험·지식 공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제주벤처마루에서 'J-Connect Day 2019'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J-Connect Day는 전국에서 지역

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지역혁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된다.

올해의 주제는 '사람을 닮은 지역의 변화, 원을 더하다'로 정해졌다. 커뮤니티 개발, 인재 육성, 소셜 임팩트, 콘텐츠 개발, 연구 플랫폼,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현장 전문가 60여 명이 지역혁신가로 참

여한다.

첫날인 7일에는 혁신자본, 교육혁신, 공공혁신 등 세 가지 주제로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8~9일에는 연컨퍼런스와 연구주제 공모가 열린다.

일반인 참가자는 1일 차 컨퍼런스를 통해 지역혁신가와 교류할 기회를 갖는다.

참가 신청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4)710-1902.

김경성기자 kks@ihalla.com

“북-미, 12월 중 정상회담”

국정원, 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서 밝혀

북한과 미국이 오는 12월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이달 중이나 늦어도 이달 초 실무회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2월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현실화된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그간 이뤄진 북미 대화의 결정판이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최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북미가 대화를 이어갈지 아니면 대결국면으로 돌아갈 지를 결정짓는 회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4일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국정감사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은 북미 실무회담이 이달 중, 늦어도 12월 초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5일 스톡홀름 실무접촉을 통해 장시간 상호 입장을 확인한 만큼 다시 만나 본격적으로 협의에 들어갈 시기가 된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제한한 바 있다”며 “지난달 5일 쌍방 입장을 토대로 본격 접촉하기 위해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국정원 보고결과를 기자들에게 전했다.

그러면서 “10월 6일 북중 수교 70주년을 계기로 김 위원장의 연내 방중 문제가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했다”며 “북미 실무회담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예상되는 3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이 중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고, 싱가포르와 하노이 회담 전 방중한 전례를 보아 김 위원장의 연내 방중 가능성이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12월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이뤄지면 싱가포르(2018년 6월 12일), 하노이(2019년 2월)에 이어 3차 북미정상회담이 되며, 지난 6월 판문점 남북회담까지 포함하면 북미 정상회담의 네번째 만남이 된다.

한편 태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열린 아세안 +3 정상회의 실질·마무리 발언에서 “북미간 실무협상과 3차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지지·협력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8회 대한민국 스타팜 한마당 축제

9~10일 제주감귤박람회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과 (사)대한민국스타팜제주협회가 오는 9~10일 제주감귤박람회장 만남의 광장 스타팜 홍보존에서 '제8회 대한민국 스타팜 한마당 축제'를 연다.

스타팜 한마당 축제는 친환경·GAP, 전통식품 품질 등 국가인증을 받은 농식품의 우수성과 농촌체험관광을 홍보하는 자리다.

주최 측은 스타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나도 스타' 원데이클래스를 운영, 스타팜과 소비자의 어울림

장을 마련한다. 스타팜 농가의 생산품을 전시해 관람객들이 국가인증 농식품의 우수성을 눈과 손으로 직접 경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나도 스타' 원데이클래스는 블루베리케이크, 키위버몬트, 감귤초코칩, 진피쌈장, 한라봉 석고향, '스타'깍 등의 만들기 체험으로 진행된다. 또한 스타팜 농가가 생산한 감귤, 레몬, 황금향, 키위, 요거트, 녹차, 된장 등 국가인증 농식품 시식 및 판매 부스가 운영된다. 체험 부스에서는 감귤잡쌀떡, 컵케이크, 한라봉 인형 만들기 등이 다양하게 운영된다.

백금탁기자

» 기획 7면... 과잉관광 대안을 찾아서 / 9면... 책 읽는 학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엉 사랑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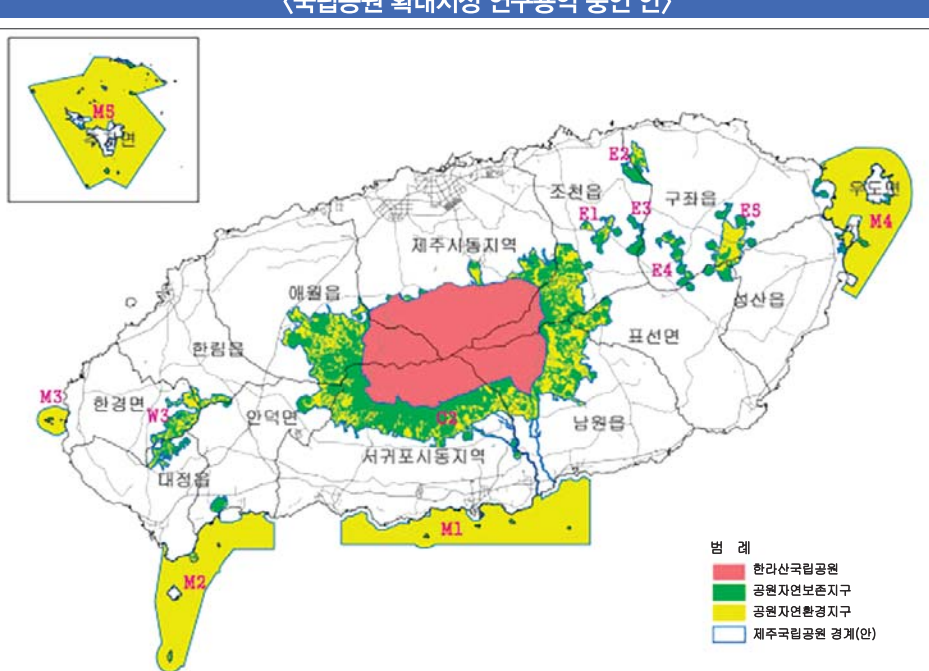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가 '국립공원 확대지정' 관련 갈등해소를 위하여 도민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도민토론회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석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9. 11. 7.(목) 14:00 ~ 16:40
- 장소 :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
-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국립공원 확대지정 연구용역 중인 안〉



범례
■ 한라산국립공원
■ 관동자연보호지구
■ 관동자연환경지구
■ 제주국립공원 경계(안)

진행일정(안)

시 간	주요내용
14:00~14:0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4:05~14:10	5' · 인사말씀 (오창수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
14:10~14:40	30' < 주제 발표 > ▷ 국립공원제도 성찰과 미래(최승현 부산대 교수) ▷ 제주국립공원 구상 및 추진방향(김태운 제주연구원 박사)
14:40~14:50	10' 휴식 시간
14:50~15:30	40' < 패널 토론 > ▷ 좌 장 : 오창수 위원장(사회협약위원회) ▷ 토론자 : 이우원 과장(환경부 자연공원과) 홍명환 의원(도의회) 김찬수 소장(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이영웅 사무처장(제주환경운동연합)
15:30~16:30	60' < 도민참여 토론회 > ▷ 좌장 : 오창수 위원장(사회협약위원회) ▷ 토론(6명) : 우도·주자 지역주민 및 임업인 ▷ 방청객 추가 질의답변
16:30~16:40	10' 종합정리 및 폐회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구성된 사회갈등의 예방·관리를 위한 위원회인 만큼, 그동안 갈등관리분과 활동 내용과 이번 토론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국립공원 확대 지정 관련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갈등관리를 위한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